

사진 1



사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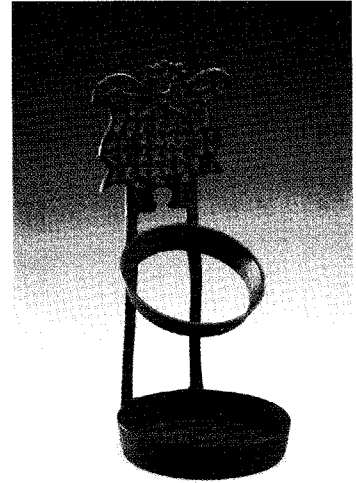


사진 3

## 부엌등[廚燈] - 벽걸이등잔

부엌에서 사용한 등잔대에는 크게 바닥형과 벽걸이형이 있다. 바닥형은 말 그대로 등잔대를 부엌 바닥이나 부뚜막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소개하기로 하고 이번 호에는 먼저 벽걸이형을 소개한다. 벽걸이등잔은 부엌 벽에 걸어두고 사용하던 것으로, 나무를 깎아 만든 것이나 놋쇠, 청동, 무쇠 등의 금속기류, 옹기나 자기 같은 도자기류가 재료로 사용되었다. 특히, 조선후기 놋 제품이 실생활 용기로 인기를 끌면서 벽걸이등잔에도 양식화된 놋 제품이 많이 만들어졌다. 주물 놋쇠에 등잔걸이 주위로 여러 가지 길상(吉祥) 문양을 새겨 넣거나 새 등의 조각을 장식으로 붙여 복을 얻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냈다. 길이는 벽에 걸었을 때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대어섯 치 내외로 짧게 만들었다. 사진 속의 등잔대 역시 놋쇠로 만들어졌으며, 벽면에 걸기 편하게 말굽 모양의 걸쇠를 만들고 등잔대 가운데에는 등잔을 받칠 수 있는 등받이를, 그리고 대의 가장 밑 부분에는 기름찌꺼기를 받을 수 있는 기름받이를 붙였다. 밑이 뿔려 있는 위쪽의 등받이에는 도자기나 옥석으로 만든 종지형 등잔을 얹어서 사용한다. 아래쪽의 기름받이는 위쪽의 등받이보다 둘레가 약간 넓고 가장자리에 일정한 깊이의 전을 돌려 떨어지는 기름 찌꺼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받게 하였다. 걸쇠의 양쪽에는 새나 나무 모양을 추상화시킨 형태의 납작한 조각을 붙여 장식하였다. 우리 문화에서 새는 솟대 위에 앉힌 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과 인간 세상을 이어주는 매우 상징적인 존재였다. 등불이라는 대상은 일상의 용기(用器) 이전에 제례 등, 신과의 만남에서 사용되던 의식용 도구가 아니었을까 한다. KEA

사진 및 자료 / 국립민속박물관, 제주민속박물관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1] 벽걸이등잔// 조선후기// 밑지름 8cm, 높이 20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2] 벽걸이등잔// 조선후기// 밑지름 9.7cm, 높이 19.3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3] 벽걸이등잔// 조선후기// 밑지름 9.9cm, 높이 23cm// 국립민속박물관